예수님의 비유

51 두 아들의 비유

마 21:23~32
찬송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오늘 배울 말씀

1.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2. 하나님 앞에 너무 늦어 회개할 수 없는 죄란 결코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 ] 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 ] 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 21:28~31)

말씀을 이해하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인들의 불의와 위선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맏아들'은 '유대의 종교가들' 혹은 '유대인'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 혹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맏아들은 말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순종합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기회와 특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곧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는 비록 죄가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종교가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위선과 형식에 매여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를 회개한다면 세리와 창기 같은 큰 죄인들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먼저'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예수님을 배척하는 위선적인 유대 종교인들조차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너무 늦어서 '회개할 수 없는 죄'란 없는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 1:22)

But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selves
(Jas 1:22)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성경에서 맏아들은 육신을 좇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둘째 아들은 성령을 좇는 구원받은 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을 창세기에서 찾아보고 각 인물의 특징을 비교하여 적어 봅시다.

맏아들		둘째 아들	
가인		아벨	
에서		야곱	

2 누가복음 18장 9~14절에서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의롭다함(구원함)을 받은 이유를 적어봅시다(시 34:18, 51:17, 사 57:15, 66:2).

3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 중에 성경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으나 나중에 돌이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 경험을 적고 서로 교제해 봅시다(롬 8:5~6, 갈 5:22~23).

4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가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교회당에서만 생활을 잘하고 집에서나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제해 봅시다(갈 6:7, 삼상 16:7).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눅 6:46	
월	눅 12:47	
화	갈 6:7	

수

갈 6:8

목

갈 6:9

금

약 1:22

토

약 4:17

순종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실 씨는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구슬이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야, 그것을 불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네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어린 소녀는 고심을 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를 택하고 그 상자를 불속에 던졌습니다.

그일 후 어느 날 아버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하던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질문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정확한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자신이 구원 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기 싫던 성경을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구원 받은 형제 자매를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오로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잘 먹고 잘 살아 볼까 하는 생각만 했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가 싫어지고 멀리하는 마음, 구원 받지 못한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체고 행함은 그림자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